



4면

조선시대 전라도를 다스렸던 전라감영 복원의 의미와 성과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0년 9월 14일 월요일 (음 7월 27일) 제2619호

대표전화 (063)288-9700

道,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2022년까지... 비수급 빈곤층 사각지대 해소 도내 노인·한부모 가구 3만 2000여명 혜택 월 평균 13만2000원 생계비 추가 지원 기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20년 만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생계급여 대상자 중 내년에 노인과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폐지하고 2022년에는 그 외 가구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다만 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당산 9억 원을 초과한 고소득, 고재산의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속 적용될 예정이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여부는 자녀나 부모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없이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해 신청서류가 보다 간소화된다.

현재 도내 생계급여 수급자는 7만 3,505명(2020년 7월 기준)으로 이 중 43%인 3만1,948명이 노인(2만5,711명)과 한부모(6,237명) 가구로 내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이들에게 월 평균 13만 2,000원 가량 생계비가 추가 지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수급자에서 탈락되었거나 신청조차 하지 못했던 노인과 한부모가 구 1만5,000명가량이 신규수급자로 보호돼 노인가구는 월평균 23만원, 그 외 가구는 53만9,000원 가량이 생계비로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중

합계(2021~2023)에 따르면 전체 빈곤층 중 노인가구의 비중은 2016년 37.6%에서 2018년 43.3%로 증가했고



공중테마사업장 내 시설 둘러보는 허태웅 농촌진흥청장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11일 김제, 부안, 고창에 위치한 소규모 영농사업장 등을 차례로 방문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허 청장이 김제시에 위치한 공중테마사업장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비수급 빈곤층의 주요 발생원인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지난해부터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수급에서 탈락한 빈곤층 722가구에 전북형 생계비(1인 가구 월 21만원, 2인 가구 월 26만원) 지원함으로써 노인 비수급 빈곤층 사각지대 해소에 선제적

으로 대응해 오고 있었다.

오택립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노인 인구비율이 21%(전국 3위)인 전북도의 경우 어르신들이 정보에 취약해서 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널리 홍보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접수 등을 병행해 신청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주한지로 희망 꿈꾸다

한지문화축제 18일 개막... 온·오프라인 병행

천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전주한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지를 통해 시민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축제가 열린다.

전주시와 전주한지문화축제조직위원회(위원장 김선태)는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 일원에서 '제24회 전주한지문화축제'를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개최한다.

올해 한지문화축제는 코로나19 여파로 종전과 달리 전국한지공예대전(5월)과 한지패션대전(8월)이 분리 개최되고, 대신 기간은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지 않도록 일주일 늘어났다.

전주한지로 희망을 꿈꾸다라는 주제의 이번 축제는 한지장인과 한지공예인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이자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치유하고 희망을 전달하는 장으로 꾸며진다.

대표적으로 한국전통문화전당 주변에 다양하고 이색적이며 아름다운 한지 조형작품과 조명들로 포토존이 구성된다. 특히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의료진들을 응원하기 위해 백의 천사를 상징하는 대형 천사상을 대형 나비를 형상화한 포토존이 만들어진다. 이와 함께 폐품과 한지를 활용해 희망과 꿈을 상징하는 대형 고래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한지 포토존에서 촬영한 사진을 축제 사무국으로 보내면 선착순 100명까지 한지로 제작된 사진을 받을 수 있다.

한국전통문화전당 1·2층 홍보관과 3층 기획전시실에서는 ▲전국한지공예대전의 초대작가 작품과

역대 대상작품 ▲한지를 활용한 그린 회화작품 ▲역대 전주한지문화축제 포스터 및 행사 사진 등이 전시된다. 현장 참가자들에게는 한지마스크가 무료로 증정된다.

온라인 전주한지문화축제 홈페이지(jhanj.or.kr)를 통해서도 축제에 참여할 수 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전주 한지업체와 공방의 한지 상품을 알리는 영상콘텐츠를 소개하고 가정에서 손쉽게 한지 공예를 체험할 수 있는 영상도 제공한다. 지난달 열린 한지패션 경진대회와 한지패션 갈라쇼, 세계민속상 패션쇼 등 한지패션대전 영상을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을 통해 볼 수도 있다.

전주한지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과 기상여건을 고려해 추석 연휴에 가족과 함께 전주한지의 다양한 볼거리를 느껴볼 수 있도록 축제를 다음 달 10일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선태 위원장은 "올해 전주한지문화축제는 관람객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비대면 중심의 콘텐츠로 준비했다"면서 "한지 관련 문화예술인들의 사기를 높이고 시민을 위로하는 뜻깊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최라기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은 "한지 산업 종사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유튜브를 통한 탐방과 체험 프로그램 등 즐거운 영상을 제작할 것"이라며 "또한 시민들이 한지상품을 다양하고 편리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북도, 정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집행 추진

송 지사 "사전준비 철저" 지시

송하진 도지사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하는 정부 4차 추경예산안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됨에 따라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는 즉시 신속하게 집행할수 있게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전북도는 정부의 4차 추경예산이 지방비 부담없이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만큼

추경상립전 예산을 통해 분야별 지원금을 도민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로 7조8,000억원 규모의 제4차 추경 예산안을 확정했다.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생계위기 가구, 육아부담가구에 맞춤형 지원을 통해 민생경제의 어려움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제4차 추경예산안의 주요내

용을 보면 우선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금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감소 등 피해가 큰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100~200만원을 지원하고 폐업준비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이외에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시중은행을 활용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융자금, 특례대출 등 금융자원을 추진한다. 이어 긴급 고용안정을 위해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50~150만원 지원하고 취업 애로를 겪는 청년(만 18~34세)에게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금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중위소득 79%이하)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지원금 4인 이상 가구 100만원(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긴급 돌봄 지원으로 학부부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초등학교까지 아동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고 통신투입 경감을 위해 만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2만원 지원한다. /유호상 기자

전북 스타 소상공인 선정

'2020 전라북도 스타 소상공인 선정 공개모집'이 지난 11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대상에는 음식점업의 '뽕국은 오남매(대표 동유홍)', 최우수상에 제조업의 '대풍수산(대표 한승우)'이 최고 스타소상공인으로 선정됐다. 또한 우수상에는 농업회사법인 유기농비건(주)(대표 채운지), 초담불고기(대표 유혜진), 메디케이시스템(대표 김현성), 유저인사이드(대표 강운구) 등 4개 업체가 선정됐다. 이날 공개모집은 업체별 소개 동영상과 발표 심사위원 질의응답 순으로 심사가 이뤄졌으며 전문심사위원 6명과 도민심사위원 100명이 아이템 경쟁력과 차별성, 성장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진행했다. /유호상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장수 JANGSU

풍요롭고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www.장수몰.com

NAVER 장수몰

장수몰 JANGSU MALL